

# 강남 '마약음료' 제조 등 공범 2명 체포

### 마약 음료 제조범,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한 혐의...원주서 검거 학부모 협박에 쓰인 전화번호 중계기 설치 용의자도 함께 체포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4시41분께 강원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같은날 오후 2시48분께 인천에서 학부모 협박에 쓰인 전화번호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B씨를 각각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후 사건 당일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

해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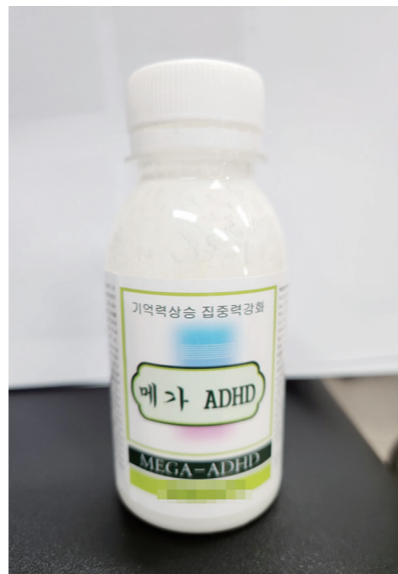
이들은 총 100명의 마약 음료를 준

비한 뒤 2명씩 2개 조를 구성해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조사 결과 해당 음료수에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며 급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잇선'을 추적해왔다.

특히 협박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이 '통화 상대방이 조선족 말투를 쓴 것



갈다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중국 등에서 배후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선욱기자



## 완도해경, 유관기관과 함께 오염사고 대응 능력 강화시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5일 완도해역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 대비 양식장 등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도지역 방재대책본부운영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여수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7일 2023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광양경찰, 안보자문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회의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와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강문섭)에서는 최근 회원 24명 등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자문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나주경찰, 교육청 합동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7일 매성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송준표기자



## 무안경찰, 관내 청소년 대상퀴즈이벤트 실시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원)는 최근 차량절도,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 광주 동부소방, 봄철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광주광역시 재향 소방동우회와 함께 어제 8일 오전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슬비기자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중기업계 "최소 동결돼야"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서는 한발 앞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3.95% 이상 오를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통상 매년 4월 초에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9일 관련연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현실화 여부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160원이었다. 올해 최

저임금 역시 전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확률이 커진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서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돼 임금지불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우리는 당연히 동결을 원한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 9620원에서 3.95% 오르면 1만원 넘어 "소상공인 부담 과해...차등적용 돼야" 노동계 "최저임금 시간당 1만2000원"

넘어서 월급을 많이 올려줬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도 "2018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더 오른다면 매출 저하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상황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과하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소동 동결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공연 관계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속박업처럼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개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부터는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영업연대 관계자도 "외식업이나 숙박업 같이 최저임금 부담이 큰 곳이 있다"며 "결국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까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거의 20% 넘게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현재도 고용 없는 자영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모씨는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으로는 못 구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직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며 "매달 인건비로만 300만원 이상이 나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 정도 된다"며 "에너지 비용도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르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지금 아르바이트생 2명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람 한 명을 더 고용하면 월 50만~6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데, 차라리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380원 많은 것으로 24.7% 인상된 안이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최이슬기자



## 역사상 첫 부활절 축제,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

다.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총연합회 분열과 투쟁으로 가득한 거리를 평화와 사랑과 화합을 담은 건강한 기독교 문화로 채우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광화문광장-시청-서울광장 일대 3.4km 구간을 걷는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는 구약, 신약, 근현대, 다음세대로 구성된다. 행렬에 교회와 선교기관, 대안학교, 다문화팀, 유모차 행렬, 대학 의장대, 경찰기마대 등 61개 팀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기독교 140년 역사상 첫 부활절 축제인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5월 9일 오전 해남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선산 등 야산을 태우고 43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야산에서 불이 나 선산 등 야산을 태우고 오전 11시20분께 진화됐다. 이날 불이 나자 진화헬기 2대와 소방차 6대, 진화대원 98명 등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섰다.



## 해남 야산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 발생

산림당국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